

Mission Nicaragua

SEPTEMBER 2025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 10:14)



(2025년 8월 도서관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는 다음세대” 2025년 그 첫걸음으로 니카라과 도서관 사역을 시작합니다. - 중남미의 작은 나라, 니카라과 하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복음의 빛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리고 배움의 문턱조차 밟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의 마음 밭에 지혜와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작지만 깊은 순종의 걸음을 떼려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의 도서관 사역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만 한편의 책조차 제대로 읽어 본적 없는 현실, 글을 몰라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 그들에게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숨 쉬는 배움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일으키고 한편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며 때로는 한 민족의 미래를 움직이는 씨앗이



(빛이 없는 땅에, 말씀의 등불이 놓입니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도서관은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다윗의 물뿔들처럼 이 땅을 깨우고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첫 걸음을 함께해 주신 한국에 잠실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미국 서부에서 동부 뉴욕과 뉴저지에 이르기까지 귀한 단기 선교팀들이 니카라과 라마나웃 크리스천 스쿨과 생명수교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진정한 섬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사역은 라마나웃 크리스



(임마누엘장로교회-미술로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



(뉴저지 소망교회, 복음으로 피어난 미소)

천 스쿨과 생명수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시설이 전혀 없어 아이들이 집과 해변에 방치되어 있고 남성 대부분이 쓰레기처리장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해변가 마을, 그리고 나가룻떼와 레옹의 빈민가까지, 확장 되었습니다. 그 척박하고 소외된 땅 위에 선교팀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여름성경 학교 (VBS), 의료사역, 노방전도, 방역사역, 미용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며 복음을 말의 아닌 삶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낸 미술사역은 아이들의 눈빛 속에 기쁨과 감동을 가득담게 했고 예수님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심어



(콜로라도 스프링스한인 침례교회-노방전도)



(뉴욕새신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방역합니다.)

졌습니다. 이번 선교팀 중에는 로마서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주제로 구약의 모세오경과 신약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그림성경 통독 시간을 정성껏 준비해 온 팀도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무거운 그림성경 180 권을 단기팀 한분 한분이 직접 가져오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단순한 수고가 아닌 복음을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에는 처음으로 선교지에 발을 디딘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의 순종하며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통해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생명수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2. 라마나웃학교에 건축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이어지도록
3. 이곳 니카라과에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4. 선교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니카라과 선교사 김인선 신유선, 하민, 영민 드림